

#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

강주연<sup>1</sup>, 이진희<sup>2\*</sup>

<sup>1</sup>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sup>2</sup>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 Mother's Play Belief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Ju-Yuyoun Kang<sup>1</sup>, Jin-Hee Lee<sup>2\*</sup>

<sup>1</sup>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sup>2</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J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의 만 4~5세 유아 160명과 그 어머니 160명을 선정하였고,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학습중심'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놀이성이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추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에 대한 인식전환 및 놀이참여 방법 등 놀이관련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between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their mothers' play beliefs. For this study, 160 mothers and 160 children aged 4-5 years who were in kindergarten and daycare centers in Area J were se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ased on correlation and mediation using SPSS Statistic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and their mothers' play belief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mother's play-support beliefs and their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learning-support beliefs and her child's peer competence and playfulness was not significan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in the young children.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ren's playful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others' play-support belief and the children's peer competence, we found that playfulness has a partial mediating role.

**Keywords** : Mother's Play Belief, Playfulness, Peer Competence, Young Children,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in-Hee Lee(Jeju International Univ.)

email: leejinhee14@jeju.ac.kr

Received March 25, 2020

Revised April 20, 2020

Accepted July 3, 2020

Published July 31, 2020

## 1. 서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생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해간다.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내에서 시작되지만 유아는 생활하는 환경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또래와의 관계로 확대된다[1]. 맞벌이 부부 및 취업모의 증가로 유아들은 과거보다 어린 나이에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형제자매들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아기 또래와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2].

선행연구[3, 4, 5, 6]에서는 유아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효과적인 기술과 능력을 '사회적 유능성' 또는 '또래 유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과 또래 유능성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7], 또래 유능성이란[8, 9, 10] 또래관계에서 함께 놀이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등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래 유능성이 뛰어난 유아는 또래집단에 잘 수용되는 특성이 있으며 갈등이 생겼을 때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등의 주도적인 행동을 보인다[9]. 유아기에 또래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 발달적 결핍을 겪게 되고 그 결과 또래집단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학습하지 못하게 된다[11]. 유아기에 시작되는 사회성의 토대인 또래 유능성은 유아의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적응과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12]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래 유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2, 13, 14]은 부모의 온정·격려 등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높이며, 부모의 과보호나 허용과 같은 양육행동이 높을 경우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 일치 여부에 따라서도 유아의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 등의 또래 유능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5].

부모의 양육행동만이 아니라 부모가 지닌 신념은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유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6]. Goodnow(1988)와 Miller(1988)는 부모가 지닌 가치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특성은 외형적 행동보다 자

녀의 발달에 더 중요한 변인임을 강조하였다[17, 18]. 부모의 놀이지지 신념은 부모가 인식한 놀이의 가치와 목표이며[19],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놀이를 통해 유아가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주요 요소이다[20].

최초의 양육자인 어머니는 유아의 놀이에 직접 참여하는 놀이상대자이자 놀이환경을 마련하는 환경제공자로서 유아의 놀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1]. 유아의 삶과 놀이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닌 놀이에 대한 신념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놀이를 가치롭게 여기는 어머니의 신념이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선택과 개입에 영향을 주어, 결국 유아와 함께하는 놀이경험에 영향을 주었다[22, 23, 24]. 또한 부모가 놀이를 지지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 및 또래 놀이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모가 학습을 중시하는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또래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25, 26, 27, 28].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은 유아의 놀이와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에게 있어 놀이는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며, 생활 그 자체인 동시에 교육이라 할 수 있다[29]. 놀이에 관한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30, 31, 32]. 놀이의 중요성과 더불어 놀이를 통해 얻은 결과보다는 유아의 놀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포괄적인 개념인 놀이성(playfulness)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3]. 유아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놀이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놀이성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확립되는, 놀이의 질적 특성 또는 놀이에 대한 태도나 성향을 의미한다[34]. 놀이성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대인문제해결, 자기조절능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4, 35, 36].

Barnett(1991)은 유아의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5가지로 구분, 설명하며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개발하였다[37].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혀내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30, 31, 32].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아의 기질과 성, 연령, 부모, 또래 등이 있다[38]. 이 중 부모는 놀이에 대한 유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놀이를 교육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39]. 최근에는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역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희경(2008)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2] 이따음(2019)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로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 및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40]. 전유진(201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애착행동이 유아의 사회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유아의 놀이성에도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 및 또래 유능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또래관계에서의 취약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요소인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J지역에 소재한 7개의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임의 선정한 후, 연구동의를 얻은 기관에 재원중인 만 4-5세 유아 160명과 그들의 어머니 160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Table 1과 같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는 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만 4-5세 유아 21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지 이해에 대한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조사는 2019년 7월1일부터 7월26일까지 실시하였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에 대한 교사의 평정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자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검사 도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평소 각 유아를 관찰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에 대한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안내문과 설문지 작성에 대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234부가 가정으로 배부되었으며 이 중 175부가 회수되었다. 어머니의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에 한하여 담임교사가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을 평정하였다. 부모와 교사로부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무응답이 있는 15부를 제외하고 최종 160부를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Characteristic		N	%	
Young Children	Gender	Male	88	55.0
		Female	72	45.0
	Age	4 years old	62	38.8
		5 years old	98	61.3
	Birth order	First	51	31.9
		Second	63	39.4
Third or later		31	19.4	
A single child		15	9.4	
Total(N)		160	100	
Mother	Age	20's	1	0.6
		30's	77	48.1
		40 years old or older	82	51.3
	Education level	High School	23	14.4
		College	70	43.8
		University	58	36.3
Graduate School		9	5.6	
Total(N)		160	100	

### 2.2 연구도구

#### 2.2.1 어머니 놀이신념

어머니의 놀이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Fogel(2003)이 개발한 부모 놀이신념 척도(The Parent Play Beliefs Scale: PPBS)를 이현지(201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21, 42]. 이 도구는 2개의 하위요인인 놀이지지(17문항)와 학습중심(8문항), 총 25문항으로, '놀이지지'는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활동이라고 믿는 신념과 관련된 문항, '학습중심'은 놀이가 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으며 학습적 활동을 중요시하는 신념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Cronbach's  $\alpha$ )는 놀이지지 .93, 학습중심 .60이며 전체 신뢰도는 .75이다.

### 2.2.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tt(1990)이 제작한 유아용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박선영(2010)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30, 31, 37]. 이 도구는 5개의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자발성(4문항), 사회적 자발성(5문항), 인지적 자발성(4문항), 즐거움의 표현(5문항), 유머감각(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놀이성 척도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신체기관 간 협응력이 높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함을 나타내고, 사회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 친구를 쉽게 사귀고, 협동적이며, 놀잇감을 함께 나눔을 의미한다.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잇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임을 의미한다. 즐거움의 표현은 놀이 시, 기쁨, 즐거움, 열성,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유머감각은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함,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런 이야기에 잘 웃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신체적 자발성 .85, 사회적 자발성 .85, 인지적 자발성 .92, 즐거움의 표현 .87, 유머감각 .80이며 전체 신뢰도는 .95이다.

### 2.2.3 유아의 또래 유능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주희, 이은혜(2001)가 개발한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9]. 이 도구의 하위요인은 사교성(5문항), 친사회성(5문항), 주도성(5문항), 총 15문항으로, 사교성은 또래와 잘 어울리고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친사회성은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 좋게 지내며 또래에게 민감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주도성은 또래 집단에서 활동이나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이끌며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사교성 .93, 친사회성 .92, 주도성 .92이며 전체 신뢰도는 .95이다.

##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3].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

어머니의 놀이신념,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r = .26, p < .01$ ), 유아의 또래 유능성( $r = .34, p < .01$ )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높으면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r = .83, p < .01$ ).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으면 유아의 또래유능성도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 '학습중심' 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r = -.09, p > .05$ ), 유아의 또래 유능성( $r = -.04, p > .05$ )과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mother's play belief	1. play support	1			
	2. learning support	-.41**	1		
3. playfulness		.26**	-.09	1	
4. peer competence		.34**	-.04	.83**	1

\*\* $p < .01$

Table 3. Mediating Effec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Step	Path			B	$\beta$	t	R <sup>2</sup>	F
1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eer competence	.499	.340	4.53**	.115	20.59**
2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layfulness	.313	.266	3.46**	.071	12.00**
3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eer competence	.188	.128	2.84**	.705	187.30**
	playfulness			.993	.796	17.70**		

\*\*p<.01

### 3.2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놀이성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놀이신념 하위요인 중에서 '학습중심'신념은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중회귀분석 가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공차(Tolerance)값이 .92로 .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 VIF값이 1.07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 공선성(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1.91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3).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종속변수인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 $\beta = .340, p < .01$ )는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11.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20.599, p < .01$ ).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놀이지지( $\beta = .266, p < .01$ )는 유아의 놀이성을 7.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2.001, p < .01$ ). 3단계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이 종속변수인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을 검증한 결과,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 $\beta = .12, p < .01$ )와 매개변수인 유아의 놀이성( $\beta = .79, p < .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 187.30, p < .01$ ). 또한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놀이지지가 종속변수인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 $\beta = .34, p < .01$ )보다 3단계( $\beta = .12, p < .01$ )에서 감소하여 매개효과 검증절차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70.5% 설명하고 있으며, 유아의 놀이성은 이들 관계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놀이성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3.41(p < .01)$ 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Sobel-test result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mother's play support belief	→	playfulness → peer competence	3.41**	.00

\*\*p<.01

## 4.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놀이신념의 하위요인 중,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놀이참여가 긍정적이고 높을수록 자녀의 놀이성이 높다[26, 27, 44]는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자

녀와 밀착되어 지내는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신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은 자녀의 놀이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유아의 놀이성 발달에 기여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놀이중심을 지지하는 경우 유아의 또래 유능성이 높다는 연구[45], 어머니의 놀이중심지지 신념이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6]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높으면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이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이 높을수록 또래와 효과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높다는 연구[32, 47], 놀이성과 창의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대인문제해결능력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34, 35, 36]들과 유사한 결과로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둘째,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유아의 놀이성은 어머니 놀이지지 신념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정서적 유능성, 사회성,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유아 놀이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4, 40, 41]들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놀이성을 매개로 한 연구[2, 32, 48]에서는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능력이 높은 유아는 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해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빈도를 늘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의 놀이성은 또래 관계에서의 취약성을 상쇄시켜주는 기제[2]로 또래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놀이성 증진을 위한 놀이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래 유능성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의 놀이의 가치와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은 유아의 또래관계, 사회적 유능성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관계 수준을 높이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어머니의 놀이지지 신념이 유아의 놀이성향을 발달시키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놀이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 등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모토(motto)로 개정된 누리과정 시행과 맞물려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시의 적절한 부모지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49]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모의 놀이참여 태도 점검 교육은 부모의 놀이신념과 관련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며 추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관련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유아의 놀이성 증진에서 어머니의 놀이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2020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누리과정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모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는 바,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인식 및 놀이지도 방법 등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추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J. H. Park,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1.
- [2] H. K. Lim,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playfulness of childr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3] J. S. Kim,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nd its relationship to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acceptance of their mothers, and expertis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2017.
- [4] J. N. Chung,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preschoolers' peer competence :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internal representation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6.

- [5] S. R. Asher, S. Hyme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 Sociometric and behavioral assessment. In J. Wine & H. Syme(Eds.) Social competence(pp. 125-157). NY: Guilford. 1981.
- [6] C. Howes,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Serial No 217). 1987.
- [7] Y. M. Bae, *Effects of emotionality and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5.
- [8] H. S. Do, *Social competence of Kindergartners and sixth graders: Its relationships to parental attention, parental protectiveness, the children's sex, and their birth categor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 s University, Seoul, Korea, 1994.
- [9] J. H. Park. U. H. Rhee, "Children's Peer Competence : Relationships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9, No.1. pp. 221-232, 2001.
- [10] E. H. Lee, Assessment and Measurement of Child Development, Seoul: Gyomunsa, 1984.
- [11] S. B. Campbell, P. Cluss, Peer Relationships of you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In K. H. Rubin & H. S. Ross(Ed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in childhood(pp. 323-351). New York: Stringer-Verlag. 1983.
- [12] M. J. Kostelnik, A. P. Whiren, A. K. Soderman, L. C. Sein, & K. Gregory,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Thomson Delmar Learning: Clifton Park, NY. 2008.
- [13] S. H. Kim, Y. B.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Children's Peer Competence: The Moderating Role of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0. No.2. pp. 471-494. 2016.
- [14] K. A. Ryu, *The effect of paternal involvement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1.
- [15] M. S. Kim, J. S. Kim, "The Influence of the Parenting Attitude and Its Consistency on the Peer competence of Preschool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9, No.2. pp. 29-38, 2010.
- [16] I. E. Sigel,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Ed.), Parental Beliefs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pp. 345-371). Hillsdale, NJ: Erlbaum. 1985.
- [17] J. J. Goodnow, "Parent's idea, actions and feelings", *Child Development*, Vol.59, pp. 286-320. 1988.
- [18] S. A. Miller,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59, No.2 pp. 259-285. 1988.
- [19] J. Faver, C. Howes, "Cultural differences in American and Mexican mother- Child pretend paly. Merrill-Palmar Quarterly, Vol.39, No.3. pp. 344-358. 1993.
- [20] J. Y. Ahn, S. Y. Park,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al Beliefs, Efficacy and Stress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0, No.1. pp. 53-68, 2002.
- [21] L. Fogel, *Parent Belief about play : Relations with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child peer play compet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3.
- [22] Y. Y. Park, L. J. Kim, "Childhood Play Experience, Play-related Perceptions and Child Perception of Mothers of Children Between Preschool through Third Grade and Their Mother-Child Play Condition", *Korea Journal of Play Therapy*, Vol.14, No.2. pp. 37-56, 2011.
- [23] M. R. Jang, *The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s and Young Children's Playfulnes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4.
- [24] J. H. Cheon,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play beliefs and children's play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12.
- [25] J. Y. Kim, *The Effects of Parents' Awareness and Practice of the Right to Play on the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Mokpo University, Muan, Korea, 2018.
- [26] M. Y. S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on mother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child-rearing role practice and children's playfulness and social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an' s University, Seoul, Korea, 2018.
- [27] H. B. Lee, *Parent beliefs about play : effects on children's playfulness and communication abili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2008.
- [28] J. A. Jin,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s and rearing attitudes on peer play interactions between young children and infants", *Korea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5, No.1. pp. 27-53, 2018.
- [29] E. H. Lee, J. H. Lee, J. W. Lee,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ul: Ewha Women's University. 2003.
- [30] S. Y. Park,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and Prosocial behavior*,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Korea, 2010.
- [31] Y. Y. Ryu, *The Observation study on Children's Imaginative Play and Teacher's Personal*,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1994.

- [32] S. J. Han, *The effects of children's playfulne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on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2013.
- [33] Y. S. Ryu,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lay beliefs to the playfulness of childre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buk University, Chungju, Korea, 2005.
- [34] M. R. Chung, S. K. Kang, M. J. Kim, "Original Article :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4- to 5- Year-Old Children's Playfulness, Communication Skills, and Creative Characteristic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3, No.5. pp. 531-542, 2015.  
DOI: <http://dx.doi.org/10.6115/fer.2015.042>
- [35] G. S. Gang, S. M. Park,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3, pp. 1165-1185, 2019.  
DOI:<http://dx.doi.org/10.22251/jilcci.2019.19.3.1165>
- [36] M. S. Choi, S. O. Song,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on Their Self-Regulation and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2, No.2. pp. 277-292, 2013.
- [37] L. A. Barnett, "The pal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Vol.4, pp. 51-74, 1991.
- [38] J. H. Liu,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preschool's play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2003.
- [39] K. S. Lee, S. Y. Kim, Y. J. Sin, T. L. Kim, "Play Development Level and Interac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with Reactive Attachment Disorder,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and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14, No.1. pp. 57-72, 1995.
- [40] M. E. Lee,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Preschoolers' Emotional and Social Competence : Th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Play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 s University, Seoul, Korea, 2019.
- [41] Y. J. Jhon, *The Mediating Effect of Playfulness on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of Temperment and Mother Attachment to Sociability in Preschool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19.
- [42] H.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play beliefs, play participation and the child's happines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s play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 s University, Seoul, Korea, 2016.
- [43]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1182, 1986.
- [44] H. R. Park, *The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s and Play Participation on Young Children's Play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Mokpo University, Muan, Korea, 2018.
- [45] H. J. Han, *Child's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According to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nd Play Belief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Gyeongin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2009.
- [46] Y. H. Nam, G. J. Kim, "The Effects of Mothers' Play Beliefs on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Creativ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 Care*, Vol.13, No.1. pp. 61-81, 2013.
- [47] J. E. Lee,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 s Playfulness and Peer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ju, Korea, 2006.
- [48] S. E.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upbring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y: the moderating effects of young children's playfulnes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eoul , Korea, 2010.
- [49]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How do I participate in child play?, Seoul: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2009.

강 주 연(Ju-Yuyoun Kang)

[정회원]



- 2020년 2월 : 제주국제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5년 4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지원팀장

<관심분야>

부모교육, 교사재교육



이 진 희(Jin-Hee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
- 2005년 3월 ~ 2014년 2월 : 제주국제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제주국제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영아발달과 교육, 유아사회교육